



집 - 의자처럼 편안한자리

사람도 잘난 사람은 잘난 값을 합니다.

장식품처럼 쓰일 사람보다는 친구하기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게 어울리고 내게 편한 집이라야 내 집이고 좋은 집입니다

내 살집인데 내 눈에 안맞추고 남들 눈에 우선 맞추는 이들도 있습니다.

클이 곧 사람이라 하듯, 집 역시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집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 허장성세와 억지가 잔뜩 느껴지는 집을

자랑으로 여기기 어려울 법한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어리석은 자랑이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특별하고 크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부담없이 작고 겸손한 것을 부끄러워 합니다.

절제있는 작은 집에서 깊은 평화와 휴식을 얻을 줄 아는 마음이

흔치 않은 세상이라 당연한 일입니다

<글: 이철수(판화가)>